

김학범호, 우즈베크관전포인트

도쿄행 위한 확실한 기선제압 생존인원 15명 '옥석 가리기'

U-22 대표팀 오늘 평가전 정예멤버 투입

2020도쿄올림픽 본선진출을 노리는 김학범 감독의 22세 이하(U-22) 대표팀이 또 한번의 의미있는 평가전을 펼친다. U-22 대표팀은 14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우즈베크스탄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치른 1차전에선 먼저 실점해 위기를 맞이했으나 세 골을 내리 꽂아 불으며 3-1 역전승을 일궜다.

●기선제압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2012년 런던대회 이후 8년 만의 메달 획득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올림픽 출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치러야 한다. 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을 겸한 이 대회는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위 안에 진입해야 한다.

쉬운 도전은 아니다. 한국은 우즈베크스탄~이란~중국과 대회 조별리그(C조)를 치른다. 1·2위가 토너먼트에 올라 정상으로 향하는 가시밭길 여정이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대회 조 추첨이 이뤄지기 전에 우즈베크와 친선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정보 유출이 우려된 상황이지만 얻을 것도 많았다. U-22 대표팀은 ▲상대 분석 ▲기선제압의 측면에서 이득을 봤다. 김 감독은 "최근 우즈베크의 경기를 지켜봤다. 당시 확인한 전체적인 패턴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살필 수 있었다. A대표팀에 차출된 주전 3명이 합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계속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존경쟁

U-22 대표팀은 '옥석 가리기'가 한창이다. 결전의 무대까지 눈도장을 찍을 기회는 두 번의 소집이 전부다. 추후 정해될 올림픽 본선 출전자도 AFC U-23 챔피언십에 나선 인원들에서 가려진다. 와일드카드(24세 이상)를 세 장 활용할 수 있어 생존인원은 15명 남짓이다. 물론 이번에 호출되지 않은 이강인(18·발렌시아CF) 등 영건들도 폭넓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1월 평가전 시리즈를 마친 후, 12월은 전지훈련을 계획한 김 감독이 고른 실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성 점검'을 위함이다. 스스로 실력을 확인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의욕과 활약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다가올 2차전에서 U-22 대표팀은 폭넓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감독은 1차전 후 "준비한 패를 전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베스트에 가까운 상대에 비해 우리 골고루 선수들을 써서 내보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포메이션 변화도 가능하다. 한국은 1차전 초반까지 스리백,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이후에는 포백으로 바꿨다. 노출을 줄이며 우즈베크 벤치에 혼란을 주기 위해 김 감독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적 후 원정선수로 창원 찾은 DB 김종규

‘보란듯’ 친정에 비수 꽂은 김종규

LG전 17득점·10R...DB는 4연승  
싸늘했던 LG팬들 환영인사 생략



창원 LG에서 원주 DB로 이적한 김종규(28)가 '원정팀 선수'로 창원을 찾았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김종규는 LG의 간판이자 상징이었다. 2013 KBL 드래프트 1순위로 LG에 입단해 6시즌 동안 창원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창원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종규는 프로농구 역대 최대 연봉(보수총액 12억7900만 원)을 받으며 DB로 이적했다.

김종규는 1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LG와의 원정경기에서 DB 이적 후 친정팀 LG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B는 12일 원주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경기를 마친 직후 창원으로 이동해 하루를 묵은 뒤 13일 경기를 위해 창원체육관에 들어섰다. 김종규는 "창원을 원정선수로 온 것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어색하다. 원정 라커룸도 처음 들어가 봤다"며 머쓱해 했다.

경기 전부터 김종규는 바꿨다. 중계방송사와 KBL에서 운영하는 'KBL TV'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팀 동료들이 내가 첫 창원 원정에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며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반면 LG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종규

는 이적 과정에서 LG와 트러블이 있었다. 재계약에 실패한 LG는 현주엽 감독과 김종규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근거로 KBL에 사전접촉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채로 이별했다. 최근 프로농구 각 구단은 팀에서 오래된 선수가 이적해 원정팀 선수로 방문하는 경우, 간단한 환영인사를 갖고 있지만 LG는 김종규를 위해 준비도 하지 않았다.

싸늘한 LG의 반응만큼 김종규도 차가웠다. 보란듯이 LG의 추격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득점을 올렸다. 경기 초반에는 첫 창원 원정에 힘이 들어간 듯 2~3차례에 걸쳐 슈트를 놓쳤지만, 1쿼터 종료 3분5초전 기록한 첫 득점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득점을 쌓았다. 3쿼터 중반에는 상대 수비를 제치고 돌파에 의한 득점으로 기세를 올렸다. 외곽에서 돌파로 득점을 올리는 것은 그가 LG에 있을 때 현 감독이 좋아하지 않았던 공격루트다.

김종규는 이날 17점·10리바운드·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차나누 오우아쿠(13점·12리바운드), 김민구(12점·3점슛 2개), 김태술(4점·5어시스트) 등 그가 믿었던 팀 동료들이 가세한 DB는 68-53의 승리를 거두고 개막 4연승을 달렸다. 반면 LG는 개막 5연패에 빠졌다.

창원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원주 DB 김종규(오른쪽)가 1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전에서 17점·10리바운드·4어시스트로 활약하며 68-53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까지 활약한 친정 LG와 첫 경기였다. 슈트를 던지고 있는 김종규. 사진제공 | KBL



LG 개막 5연패...현주엽 감독의 긴 한숨

단순한 공격루트...자신감까지 다운

'진퇴양난'이다. 답이 없다. 개막 5연패를 당한 창원 LG의 현실이다.

LG는 1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 DB와의 홈경기에서 53-68로 패했다. 개막 5연패.

개막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기



LG 현주엽 감독

때문에 초반 연패 극복이 가능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문제다. 5일 서울 삼성과의 개막전(82-83 패)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차 이상의 대패를 당했다. 9일 서울 SK(76-105패), 11일 전주 KCC(56-81패)와의 경기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무너졌다.

오픈시즌 동안 LG는 포인트가드 김시래를 중심으로 한 2대2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이미 연습경기 때부터 상대 팀들은 이를 파악했다.

김시래가 매 경기 집중마크를 당하면서 LG는 주요 공격 루트가 차단당하고 있다. 이날 DB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0점·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19%(3/16) 밖에 되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외국인들의 1대1 공격에 치우치고 있지만, LG가 계약한 캐디 라랜(31점·13리바운드)과 버는 맥클린

(0점·3리바운드)은 1대1 공격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다.

이처럼 지금의 LG는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LG의 현주엽 감독은 "여름 동안 준비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뭐 하나가 잘 안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전부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패에 빠지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져 경기가 더 풀릴 않는다. 일단 선수들의 자신감부터 높여나갈 도록 할 생각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원 | 정지욱 기자

우리카드 역시 다크호스!... '장충의 봄 시즌2' 알리다

'세번째 외인' 펠리페 23득점 펠펠 삼성화재 완파...2강 위협할 팀으로



굳건한 '양강' 구도에 균열을 만들 수 있을까.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2파전에 우리카드가 야심찬 도전장을 냈다. 흥미로운 구도에 코트는 시작부터 뜨거워졌다.

우리카드는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2019~2020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 완승을 거뒀다. 적진에서 승점 3을 추가한 우리카드는 산뜻하게 시즌 첫 단추를 끼웠다. '세 번째 외인' 펠리페의 활약이 빛났다. 우리카드는 당초 기존 외인 리버맨 아가메즈와 재계약을 했으나 부상으로 그를 방출했다. 후임자 제이크 랭글로이스 역시 V리그 수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앞선 2시즌 V리그를 경험한 펠리페를 영입했다. 펠리페는 첫 경기에서 양 팀



우리카드 외국인선수 펠리페(오른쪽)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2019~2020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첫 경기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3-0 완승을 거뒀다. 사진제공 | 우리카드 배구단

최다인 23득점으로 펠펠 날랐다.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창단 최초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봄 배구'의 맛을 본 기

세를 이어갔다. 배구 열기가 뛰어난 서울 연고 구단으로서 '장충의 봄'을 맞본 경험은 올 시즌 우리카드를 다크호스로 꼽는

원동력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앞서지만, 우리카드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화재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시즌, 창단 후 두 번째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의 아픔을 겪으며 절치부심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피하지 못했다. 홈 개막전을 찾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하루 전 열린 공식 개막전부터 열기가 후끈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천안 원정에서 '디펜딩챔피언' 현대캐피탈에 세트 스코어 3-1 승리를 거뒀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패배를 설욕한 한 판이었다. 이날 천안 유관순체육관에는 3788명의 관중이 찾았다. 역대 V리그 개막전 4번째 매진 사례였다. 개막전은 직전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과 챔피언결정전 승리 팀이 맞붙는 것이 전통이다. 최근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은 이번에도 '양강'으로 꼽힌다. 이제 막 투쟁을 열었지만 뜨거운 순위 싸움이 예측된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